

남북 열차 타고 판문역 집결

철도·도로 착공식 이산가족 "실향민들도 기차 타고 고향갈 수 있다면"

남북 철도가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만났다. 남북의 정부 당국자와 철도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수 의지를 확인하는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이날 오전 6시48분께 서울역을 출발했다. 기관차 2량, 발전차 1량, 열차 6량 등 총 6량으로 편성된 특별열차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조영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이산가족, 남북 화물열차 기관사 등 100여명이 탑승했다.

특별열차 출발에 앞서 조 장관과 국회의원 등은 서울역 3층 환담장에서

인사를 나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에 참석하지 않았다. 남북 경험 행사에 이례적으로 참가한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포옹하며 인사를 나눠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 까지 남북 화물열차를 운행했던 신장철 제진역 명예역장은 열차에서 취재진에게 "감개무량하다. 퇴직하고서도 언제 가볼까 싶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개성이 고향인 이산가족 김금옥(86·여)씨는 "고향 땅에 간다는 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희열이랄까, 기쁨이랄까 몰라요"라며 "젊은 분들에 저렇게 고향을 갈망할까 하지만, 어렸을 때 지낸 곳이니 옛 추억이 새롭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실향민들 많은데, 그분들도 기차 타고 당신들 고향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우리는 나이가 많잖아. 기차타고 가보는 게 큰 희망"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제가 2002년 9월18일 북한에 철도 자재와 장비를 주는 착공식을 했고, (이재정 전 장관이) 2007년 5월17일 시범 운행 경의선, 동해선 착공식을 했다. 그때도 남북이 100명씩 (참석했다)"라고 말했다.

옆에 앉아 있던 이 전 장관은 "11년 전 판문역을 통해 개성에 화물열차가 가고, 원자재가 건너가고, 개성이 열리게 된 거다"라며 "철도가 신의주 현지 조사까지 끝났는데, 이전 11년 전보다 진입본된 거다. 이것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특별열차는 이날 오전 8시께 남측 도라산역에 도착해 출결심사를 받고 북측 판문역으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8시34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하고, 오전 9시에 개성 판문역에 도착했다.

착공식에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

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운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추 대사를 비롯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 인사들과 아르미다 알리사비나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사무총장 등 외국 인사 8명도 착공식에 참석했다.

착공식 공식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동안 축사, 침묵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착공식 공식 행사 종료 후 남측 인사들은 북측의 환송을 받고 개성 내 송악플라자에 마련된 오찬장으로 이동했다.

참석자들은 개성에서 별도 오찬을 가진 뒤 열차편으로 귀환했다.

착공식을 위해 편성된 새마을호 특별열차는 이날 오전 종료 후 참석자들을 태우고 판문역을 출발, 오후 1시 33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귀환했다. /뉴시스

김중희 '식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중희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28일 금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식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중희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김 호 단국대 교수, 안주용 민중당 농민당 대표, 정학철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석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하며 윤병선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최근 정부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직불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편안의 취지에는 정부와 농업계의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

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부의 대안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 국회, 전문가,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농민들의 총의를 모으고 정부에 대안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남원시, 문화도시 예비주자 선정 쾌거"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6일 전북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예비주자로 선정



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로부터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1년간의 예비사업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제1차 문화도시 심사에서 남원을 포함한 총 10개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이에 남원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리문화도시'를 주제로 예비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후 2019년 하반기에 분사업 선정을 위한 문체부 심의를 거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직장동료에게 고통은 'No'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8건의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

회에서는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지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병합 심리해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일부 의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안을 반대했다.

직장내 괴롭힘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 시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예정이다. /뉴시스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전북도 협의회 2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안전교육문화운동 추진 전북도협의회에 송하진 도지사가 안전교육과 문화진흥계획 협의 및 종합토론 주재를 하고 있다.

'서남대 먹튀 방지법' 법사위 통과

비리사학 재산 빼돌리기 불가능해 질 듯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임원 등

이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폐교 시에 전체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서남대의 경우 333억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아 폐교에 이르게 되었으나, 횡령액을 갚는거념 오히려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학원에 귀속되도록 하여 '먹튀', '재산 빼돌리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당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친족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법인에 잔여재산을 귀속하

면 그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즉, 횡령액 등을 갚지 않고 남은 재산을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빼돌리려 하는 경우,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남대의 경우, 이용호 전 총장이 333억을 횡령하고도 이를 갚지 않은 채 남은 재산을 부인이 총장으로 있던 신영학원에 넘기려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게 된다. /김진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